

자원봉사자 연락주세요!

단체명	주소	연락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 경운동	02-723-0258
생명나눔살림회	서울 관훈동	02-734-8050
자비외전회	서울 인사동	02-720-5057
승가원	서울 안국동	02-628-0750
새생명사랑회	경남 진주시	0591-785-6611
양천구 경포식당	서울 신림동	02-698-9605
외국인 노동자아울	서울 권지동	02-720-3783
인덕원	서울 경의동	02-385-8205
원심회	서울 전지동	02-720-4528
자비외전	서울 마포동	02-945-4200
강문식당회	경남 진주시	0591-352-5577
대한불교장제인포교회	서울 권지동	02-738-5973
대성요양원	경북 안동시	0571-355-4485
상암원	경남 진주시	0591-344-2181
성무원	부산 연산동	051-759-9211
신해장신요양원	전남 해남읍	0634-336-7644
연호복지학원	서울 석촌동	02-202-5831
영로장신요양원	부산 온천2동	051-355-8009
자비장신요양원	부산 장전2동	051-352-1234
진비재학원	부산 해운동	051-3247-4084
치자마을	경남 거제시	0558-332-1854
경인원요양원	경기 양광군	0338-772-4964
용비나눔수아동교실	경기 부천시	032-668-0073
주동재학원	서울 상암동	02-427-9733
행이학교 이나눔	대전 문화동	042-585-0035
소복새마을	광원 원주시	0371-762-3745
부부나눔수아동교실	인천 가좌동	032-383-1669
관음대비원	경기 파주군	0348-958-3043
보라수아동	광원 양양군	02-733-0640
부부나눔수아동교실	경기 성남시	0342-159-5320
선화노인요양원	전남 해남읍	0634-333-9291
소향원	전남 화순군	062-222-6030
유치안요양원	경남 울산시	0522-197-1930
정화요양원	부산 화명동	051-3332-3996
침수관망아원	경주 서문동	0431-221-0836
봉도사 자비원	경남 양산군	0523-183-3999
배양요양원	서울 시흥2동	02-802-6765
화상요양원	대구 상동	053-766-4553
대각자비원	부산 초량동	051-465-8307
성리원	서울 성북동	02-743-4026
성지원	수원 조원동	0331-744-0730
자비정사	경기 화성군	0339-357-5788
재우요양원	제주 도령동	064-47-8337
나눔의집	경기 광주시	0347-363-9685
대전 경로자비복지원	대전 선화동	042-271-9341
호산마을	전남 화순군	0612-265-2381
목련회합	경기 포천군	0357-34-6554
경주대자원	경주 노서동	0561-772-3228
관음보살원	경기 양주군	0351-140-5161
대전자비원	대전 소재동	042-672-8262
송암동산	경기 시흥시	0345-1498-5326
해일보육원	서울 시흥5동	02-802-0358
예천 연꽃마을	경북 예천군	0584-53-7714
자비연육아원	강원 강릉시	0391-142-3555
강릉시립복지원	강원 강릉시	0391-3648-0272
원주시립복지원	강원 원주시	0371-47-1795
해남회합원	전남 해남읍	0634-536-3640



◇'97 미스코리아 선(善) 조혜영 미(美) 여해전씨가 3일 소복새마을을 방문하여 하루를 자원봉사했다. 특별한 불자인 이름은 부업일, 유아방 청소, 생일파티, 이기덕육 시키기 등의 봉사를 펼쳐며 임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자원봉사

“나누며 살다보니 사는게 즐겁다”

기다리던 여름방학과 황금같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셨습니까? 이 기간 평소 애용해오던 자원봉사로 무더위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자부리시간을 이용하여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 커지는만큼 시원스러움도 더해준다.

노인시설과 보훈병원 소복새마을 등에서 무료 간병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정민(54)씨는 사는게 즐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에 가입하여 간병봉사활동을 펼치온 그는 “매주 꼭 한번은 노인양로 시설을 찾아 말벗 세탁 청소 목욕시키기등을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이하 불자연)에서 보문아학을 지도하고 있는 고준자(56)씨는 전직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주 3회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한글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다.

“아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풀어왔던 불경과 찬불가를 술술 읽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지 열심히 공부하지요.”

고준자씨는 학생(?)들이 《반야심경》을 띄엄 띄엄 읽고 편지도 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활동의 고단함이 눈녹듯 사라진다고 말한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사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통해 진실한 벗으로 다가가는 인생상담원.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현정(자비의 전화 총무)씨는 “아름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전화상담봉사는 ‘무주상보시’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 부모간의 갈등, 자녀문제등이 주된 상담내용이며 그들에

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다.

최근 봉사활동이 물질지원에서 참가하여 함께하는 봉사로 바뀌면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산업사회화되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다 보람과 가치있는 삶을 꾸려가는 봉사활동을 선호하기때문.

은 나라를 바탕으로 돌고돌고 삼삼백회점 봉고사고 때 그나마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한줄기 빛이되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함을 무릅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었다. 조계종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복련동 불교복지단체의 활약은 단연 두드러졌고 구룡사 노인선원 연합회 사찰보조 도매봉사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지도 노인부업지도 장애봉사 신형 및 고층상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일정기간 복지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심장병어린이수술비 돕기 모금을 위한 편지쓰기, 장애인과 노래방가기, 화단 풀뽑기, 아동목욕, 물건정돈, 노인선원치리예주기, 심부름하기, 배변도우드리기, 함께 외출하기, 대화하기, 나무뿌리 흙으로 덮어주기등 능력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대로 봉사일을 골라 우리모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단연 포화나 삶의 기쁨을 준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금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

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

최근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자

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68.7%나 됐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은 21%, 알선하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23.3%, 하고싶은데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24.5%에 이르고 있다.

교계에 자원봉사 참여교육과 봉사활동을 소개해주는 복지관 및 단체 시설은 2백여곳에 이른다.

영역과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아동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사회운동, 교육, 상담, 자연보호및 재해구조 등으로 나뉜다. 자원봉사는 행사동행과 보조 놀이지도 학습지도 컴퓨터지도 소식지제작 이·미용봉사 김장담그기 식사보조 도매봉사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지도 노인부업지도 장애봉사 신형 및 고층상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일정기간 복지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심장병어린이수술비 돕기 모금을 위한 편지쓰기, 장애인과 노래방가기, 화단 풀뽑기, 아동목욕, 물건정돈, 노인선원치리예주기, 심부름하기, 배변도우드리기, 함께 외출하기, 대화하기, 나무뿌리 흙으로 덮어주기등 능력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대로 봉사일을 골라 우리모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단연 포화나 삶의 기쁨을 준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금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

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김영민 <아반코리아 대표>

“자원봉사는 자기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돕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시아 15개국 자원봉사단체 아반(AVAN)의 한국대표인 김영민씨는 자원봉사가 봉사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활동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인력 불교가 중생제도를 실천하는 종교이고, 그 만큼 이타행의 첫걸음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점에서 불교는 자원봉사교단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그 발전상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는 자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원활동은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등 주위부터 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역인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는 자원봉사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활화과 밀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너무 활동분야가 사회복지에 치우쳐 일반사람들에게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기 힘든 주유소마는 자원봉사라고 지적한 그는 동기부여를 통해 복지단체에 참가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민씨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우리선우 간사로 활동하다 88년 일본에서 일본청년봉사협회 주최의 아시아 프론티어 인스체인지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했으며 96년 7월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현재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이웃사랑회와 청소년회를 조직하여 정자교육지원 동아리학교 원2회 봉사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를 집필중이다.

이타행의 첫걸음 자원봉사

